

【附錄】

서면답변서

축산과장 이 무 용

질 의 자 : 김수영 의원

질의내용 : 축산농가의 융자지원 기준 및 지원내역, '94년도분에 대하여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,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이며 축산농가의 지원기준은 형평에 입각 했는지?

- 답 변 -

1.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지원기준(농림수산부 '94축산발전사업계획 지침에 의함)

〈개인전업농〉 : 한우, 젃소, 돼지, 닭

- 55세 이하로서 5년이상 해당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자 (56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같이 전업으로 종사할 경우 가능)
- 농과계 졸업생 또는 후계자로서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한 자

○ 대상자중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 사항 (농림수산부 '94축산발전계획 지침에 의함)

〈한우〉

- 번식우는 5두이상, 비육우는 5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2년이내 번식우는 10두이상, 비육우는 100두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한우를 사육하려는 농가
- 초지·사료포동 조사료생산기반과 가축운동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
- 1년이상 경영일지를 기장하고 있는 자
- 현장훈련실시, 시범농장으로 개방등 다른 한우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
- 번식사업의 비율이 높은자
- 평야지등 일반지역 보다는 산간지대등 한우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
- 위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장

〈젃소〉

- 착유우를 15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2년이내에 착유우 30두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하려는 농가
- 초지·사료포동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
- 1년이상 경영일지를 기장하고 있는 자
- 현장훈련실시, 시범농장으로 개방등 다른 젃소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
- 평야지등 일반지역 보다는 산간지대등 젃소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
- 1등급 원유생산 비율이 높은 자

〈돼지〉

- 자금지원후 2년내에 500두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자담능력이 있는 자
- 개열화사업 또는 수출돼지고기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자
- 현장훈련실시, 시범농장으로 활용등 다른 양돈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
- 전산관리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

〈닭〉

- 자금지원 받은 후 2년 이내에 3만수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자담능력이 있는 농가
- 개열화사업 또는 수출 닭고기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자
- 현장훈련실시, 시범농장으로 개방등 다른 양계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
- 전산관리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

○ 대상자 선정방법 (농림수산부 '94축산발전계획 지침에 의함)

- 사업희망자 군(읍면)에 사업계획서 제출
- 군은 사업계획서 적정여부, 인·허가등 적법성등을 검토한 후, 사업계획서를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동 축산분과위에 상정
- 농발심의회 및 동 축산분과위는 대상자 우선순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되, 해당축종 사육농가 대표가 2/3이상 참여하는 축종별실무협의회가 실질심사·선정

○ 대상자선정 절차

- '93. 12. 1 ~ 12. 20 :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- '94. 12. 23 ~ 12. 30 : 신청농가 현지확인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
- '94. 1. 19 :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위 축종별실무협의회 개최
(대상자 선정)→농어촌발전심의회 상정

2. 지원내역

사업별	개소수	사 업 비 (천 원)						비 고
		계	국 비	지방비	기금보조	기금융자	자 담	
계	54	3,863,475	2,080	17,600	38,847	2,652,716	1,152,232	
한우경쟁력	27	1,615,400	1,456	9,776	22,306	1,105,830	476,032	
젓소 "	22	1,185,895	624	7,824	16,541	805,086	355,820	
돼지 "	1	186,000				129,000	57,000	
닭 "	4	876,180				612,800	263,380	

3. 앞으로 개선점

현재 농가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축사부지정지비도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조치 요망

4. 축산농가 지원기준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했는지?

사업대상자 선정시 해당축종 사육농가 대표가 2/3이상 참여하는 축종별실무협의회에서 실질심사·선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평하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